

여대생과 그들 어머니의 외식산업에 대한 식생활 태도 조사

강남이 · 조미숙*

서울보건전문대 식품영양과,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A Survey of Dietary Attitude on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College Women and Their Mothers

Nam-E Kang · Mi-Sook Cho*

Dept. of Food & Nutrition, Seoul Health Junior College,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ABSTRACT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etary attitude on the nutrition knowledge, food habits, the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and the intake of instant food, convenience food & fast food between college women and their mothers.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214 college nutrition majors and also by their mothers numbering at 173.

College women's mothers showed a better average in meal time regularities per week than that of college women. Also it is the fact that the college women had a higher frequency rate of instant food and fast food than their mothers.

In the case of both college women and mothers if they eat at regular meal times they had a higher score in food habits. But the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was not significant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meal time regularity and nutrient intakes did not coincide. The higher frequency of instant food intake had a lower score in food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The higher frequency of fast food intake had a higher food habits score but it also had a lower score in nutrition knowledge.

As in the intake of instant food and convenience food the college women had a higher intake frequency. In the dietary pattern the college women they liked to eat flour foods. But their mothers liked to eat Korean foods.

The selective motive and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food service industry product was for convenience and time saving. The food service industry products were found to be unsatisfactory in nutrition and sanitation. Therefore we must be more aware of preventing the disappeara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For the continuing development of our dietary culture we need to have the food service industry to develop more suitable diet for Korean.

I. 서 론

우리나라 식생활형태는 경제발전으로 소득증가,

여가생활의 증대, 인구의 도시 집중,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대에 따라 많이 변모하였고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선호가 증대되는 등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식생활의 국제화, 가공식품화, 레저화의 양상을 보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외식산업의 번창과 외식화이다¹⁾. 바쁜 사람들이 신속하게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사를 판매하는 외식산업(food service industry)은 식품산업, 식품서비스 산업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식생활을 혁신시키는 새로운 형태의 식품²⁾이 나옴에 따라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채 인스턴트식품(instant food), 편의식품(convenience food), 가공식품(processed food), 즉석식품(fast food) 등이 혼용되어 새로운 식생활 형태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외식비율은 1987년 평균 11.6%(도시가구당 12.1%, 농촌 11.0%)로 도시가구당 1988년 ¼분기에 13.2%까지 증가했으며 도시가구당(4.1인 기준) 월평균 외식비가 1980년 2,871원에서 1988년 19,169원으로 증가했음을 보고하였다³⁾. 또한 주요 가공식품의 생산량 추이는 1975년에서 1984년까지 품목간에 차이가 있으나 소시지 12.3배, 젓산균 발효유 26.4배로 증가하였고 가공식품의 유별 생산액 추이를 보면 지난 10년간(1976~1986) 식료품제조업의 생산액은 약 7배 증가한데 비해 과일 및 채소가공업의 생산액은 42배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육가공제조업 21배, 수산물처리가공업과 낙농품제조업 그리고 동물성 유지가공업과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생산액은 10~13배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²⁾을 보였다.

선진국의 경우 소득이 증가할수록 패스트푸드(즉석식품) 이용이 증가되었다고 보고⁴⁾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여러 외식산업의 형태중 패스트푸드 상점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보급되고 있다¹⁾고 한다.

따라서 새로운 세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청소년기 및 청년기⁵⁾를 외식산업 및 외식산업식품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여대생과 그렇지 못한 50세 전후의 그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양지식, 식습관, 영양섭취상태가 식생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외식산업식품 섭취상태를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II.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본 연구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인 전북 전주우석대학 78명, 경기도 성남시 서울보건전문대학 136명과 그들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24시간 기억법을 이용하여 영양지식, 식습관, 1일 영양소 섭취량, 식생활태도, 외식산업식품 섭취상태를 조사하였으며 분석상 자료가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여대생 총 214명과 어머니 총 173명의 자료만을 비교 분석하였다.

조사기간은 1990년 6월4일~8일로 평상시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평일로 임의의 1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영양지식 및 식습관, 1일 영양소섭취량 조사는 선행된 연구¹⁸⁾의 방법과 같다.

식생활태도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1주일중 규칙적인 식사일수,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식사 섭취빈도를 조사하였고 외식산업식품 섭취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 즉석식품을 구별하도록 몇가지 식품의 예를 열거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외식산업식품 섭취 및 외식상태 조사, 외식산업식품의 선택동기 순위, 외식산업식품에 대한 만족도, 간식섭취상태, 식품구매시 선택순위 및 고려사항 순위를 조사하였다.

3. 자료처리

여대생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된 영양지식 및 식습관 점수, 1일 영양소 섭취량은 선행된 연구¹⁸⁾의 자료처리방법과 일치하였다.

식생활태도는 χ^2 -test로 두 집단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영양지식 및 식습관 점수에 따른 식생활태도와 의 관계, 식생활태도에 따른 1일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계는 2원변량분석하였다.

외식산업식품 섭취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가공 편

의식품 섭취 및 외식조사, 외식산업식품의 선택동기 순위와 만족도, 간식섭취실태, 식품구매시 선택 및 고려사항 순위에 대해 각각 χ^2 -test로 두 집단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생활태도 조사

식생활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1주일간의 규칙적인 식사일수,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 패스트푸드 식사 섭취빈도를 알아보았다.

규칙적인 식사일수는 Table 1에서와 같이 1주일중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 날이 4일 이하인 경우가 어머니 26%인데 비해 여대생은 60%로 어머니가 여대생보다 하루3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60.0$, $df=3$, $P<0.0001$). 이것은 여대생의 경우 일찍 등교를 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거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는 1주일중 그 섭취횟수가 2일 이하인 경우가 어머니 83.8%, 여대생 41.5%로서 어머니의 인스턴트식품 섭취는 김⁶⁾의 조사에서와 같이 주1회 이하 86.3%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인스턴트식품이 주부들의 관심을 덜 받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패스트푸드 식사에 대한 빈도를 보면 1주일중 식사빈도가 3일 이상인 경우 여대생 18.7%, 어머니 4.6%로 청소년층에서 패스트푸드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손⁷⁾의 조사에서 편의식품의 사용빈도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우리 고유의 전통적 식생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영양지식점수·식습관점수에 따른 식생활태도와의 관계

선행연구의 결과¹⁸⁾와 비교할 때, Table 2에서와 같이 1주일중 규칙적인 식사일수는 여대생·어머니 모두 영양지식점수가 높을수록 식사는 불규칙하게 하였으

Table 1. Percentage of subjects by dietary attitude survey

[Unit : Respondent % (n)]

Item	Group Frequency	College women		χ^2
		College women	Their own mothers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0 to 2	24.3(52)	9.8(17)	60.0***
	3 to 4	36.4(78)	16.2(28)	
	5 to 6	31.8(68)	41.6(72)	
	7 days	7.5(16)	32.4(56)	
	Total	100.0(214)	100.0(173)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0 to 2	41.5(89)	83.8(145)	71.4***
	3 to 5	43.5(93)	11.6(20)	
	6 to 7 days	15.0(32)	4.6(8)	
	Total	100.0(214)	100.0(173)	
Fas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0 to 2	81.3(174)	95.4(165)	19.8**
	3 to 5	15.4(33)	2.9(5)	
	6 to 7 days	3.3(7)	1.7(3)	
	Total	100.0(214)	100.0(173)	

P<0.01, *P<0.001

Table 2. Dietary attitude according to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Item	Group	Score Frequency	Nutrition knowledge score	Food habits score
1.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A	0 to 2	14.0	3.8
		3 to 4	14.2	4.5
		5 to 6	13.8	5.2
		7 days	13.9	6.0
	B	0 to 2	13.7	4.1
		3 to 4	13.5	5.1
		5 to 6	13.0	5.5
		7 days	13.5	5.9
Significant Effect Factor			a** b' ab'	c* d*** cd'
2.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A	0 to 2	14.1	4.7
		3 to 5	14.2	4.6
		6 to 7 days	13.5	4.5
	B	0 to 2	13.5	5.5
		3 to 5	13.0	5.4
		6 to 7 days	10.3	4.3
Significant Effect Factor			a*** e** ae*	c*** f' cf'
3. Fas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A	0 to 2	14.0	4.6
		3 to 5	14.0	4.6
		6 to 7 days	14.0	5.0
	B	0 to 2	13.3	5.5
		3 to 5	12.0	4.4
		6 to 7 days	13.0	4.2
Significant Effect Factor			a** g' ag'	c** h' ch'

∩ : No significant, *P<0.05, **P<0.01, ***P<0.001

a : Effect of between two groups &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by F-test

b : Effect of between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by F-test

ab : 2-way interaction

c : Effect of between two groups & the score of food habits by F-test

d : Effect of between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 the score of food habits by

F-test

cd : 2-way interaction

e : Effect of between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and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by F-test

ae : 2-way interaction

f : Effect of between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and the score of food habits by F-test

cf : 2-way interaction

g : Effect of between fast food use frequency per week and the score of nutrition knowledge by F-test

h : Effect of between fast food use frequency per week and the score of food habits by F-test

ag : 2-way interaction

ch : 2-way interaction

나 영양지식 점수와 식사 규칙성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여대생·어머니 모두 규칙적인 식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중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는 여대생, 어머니 모두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인스턴트식품 섭취가 적었다.

1주일중 패스트푸드 식사 섭취빈도에서는 여대생의 경우 영양지식 점수와 무관하였으나 어머니의 경우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패스트푸드 식사를 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여대생은 패스트푸드 식사를 자주 하였으며 어머니는 자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전⁸⁾의 패스트푸드 식당 이용자 조사에 의하면 31세 이상 여성의 이용율이 전체 대상자중 8.1%에 그친 것으로 보고된 바, 본 조사의 어머니 연령층은 패스트푸드 식사를 자주 하지 않는 결과와 일치한다.

3. 식생활 태도에 대한 1일 영양소 섭취량과의 관계

1주일중 규칙적인 식사일수에 대한 1일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3과 같다.

여대생의 경우, 식사의 규칙성과는 1일 영양소 섭취량이 무관하게 나타났으며 규칙적이라고 모든 영

양소의 섭취량이 양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경우 1주일중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비타민 C와 칼슘을 제외하고는 영양소 섭취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선행연구의 결과¹⁸⁾와 비교해 보면 식사의 규칙성 여부는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하나 먹을 때 균형된 식품을 섭취하는 올바른 식습관이 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1주일중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에 대한 1일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4와 같다.

여대생의 경우, 인스턴트식품을 1주일중 3일 이상 먹을수록 1일 영양소 섭취량이 높은 경향으로 어떤 형태의 음식이든 많이 먹는데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경우,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와는 1일 영양소 섭취량이 무관하게 나타나 집에서 조리한 음식으로 균형된 식사를 하는 좋은 식습관 형성시 영양섭취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생각된다.

1주일중 패스트푸드 식사빈도에 따른 1일 영양소 섭취량은 Table 5와 같다.

여대생의 경우, 패스트푸드 식사를 자주 할수록 비타민 A, B₁, C를 제외한 모든 영양소에서 섭취량이 높았다. 어머니의 경우는 반대로 패스트푸드 식사를 자주 하지 않을수록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으며 이런 경향은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 결과와 같은데 여대생은 외식산업식품의 발달과 함께 성

Table 3. Daily average nutrition intakes according to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Group	Nutrient Frequency	Calo-	Pro-	Vit.	Vit.	Vit.	Nia-	Vit.	Ca	Fe
		rie	tein	A	B ₁	B ₂	cin	C	(mg)	(mg)
		(cal)	(g)	(I.U)	(mg)	(mg)	(mg)	(mg)	(mg)	(mg)
College women	0 to 2	2023.9	75.9	4603.8	1.28	1.30	17.8	163.2	661.3	18.7
	3 to 4	2137.4	79.7	5011.3	1.39	1.60	18.9	161.5	652.6	20.2
	5 to 6	2067.5	81.6	5288.7	1.51	1.55	17.9	157.8	624.1	20.3
	7 days	2100.1	83.6	4530.2	1.78	1.29	17.1	84.9	574.4	17.1
Their own mothers	0 to 2	1904.5	78.8	7981.8	1.25	1.50	20.2	186.7	676.1	21.2
	3 to 4	1966.0	76.9	10701.5	1.38	1.45	19.4	156.1	532.9	20.2
	5 to 6	2098.2	91.6	13426.3	1.70	1.77	24.5	169.8	640.4	25.0
	7 days	2051.6	86.2	13864.9	1.49	1.62	23.4	148.7	652.5	23.8
Significant Effect Factor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a** b' ab'

': No significant, *P<0.05, **P<0.01, ***P<0.001

a : Effect of between two groups &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by F-test

b : Effect between of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 meal time regularity per week by F-test

b : 2-way interaction

장해오면서 어머니 연령층보다 인스턴트 및 편의식품, 패스트푸드 식품과 더욱 친숙해졌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4. 외식산업식품 섭취실태

1) 가공·편의식품 섭취 및 외식 실태 조사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에 대한 식생활태도 조사는 Table 6과 같다.

1주일 동안 식사중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의 섭취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가 여대생 17.3%, 어머니 49.7%로 여대생이 어머니보다 더 자주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푸드 식사를 더욱 좋아한다는 보고^{1,2)}와 일치한다.

이 여대생들은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어린시기를 식품산업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⁹⁾에 보냈고, 청소년은 편리한 식품⁸⁾을 찾는데서 온 결과로써 가정에서의 규칙적인 하루 3끼 식사를 저해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영양문제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안¹⁰⁾의 보고에 의하면 외식식품중 면류와 밥류의 열량 및 단백질이 한국인 영양권장량의 1끼 영양필요량에 못 미친다고 하였고, 김¹¹⁾의 보고에서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패스트푸드 식사의 영양 및 품질면의 불안전성은 소비자 건강의 위협이 됨을 시사한 바와 같이, 본 조사에서 여대생의 가공·편의식품의 섭취형태 및 외식형태가 각각 70.1%, 47.2%가 분식인 것은 영양 불균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 섭취형태와 외식시 형태를 보면 한식형태로 섭취하는 비율이 여대생의 경우 각각 9.8%, 20.6%인데 비해 어머니는 각각 32.9%, 60.7%로서 어머니가 여대생보다 한식형태의 식사를 많이 하고 있다. 이것은 나이든 사람일수록 전통음식의 기호도가 높다는 보고^{7,10,12)} 등과 일치한다.

외식시기를 보면 여대생은 60.2%가 아침에 외식을 하고 어머니는 56.6%가 점심에 외식을 하는 것으로

Table 4. Daily average nutrition intakes according to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Group	Nutrient Fre- quency	Calo- rie	Pro- tein	Vit. A	Vit. B ₁	Vit. B ₂	Nia- cin	Vit. C	Ca	Fe
		(cal)	(g)	(I.U)	(mg)	(mg)	(mg)	(mg)	(mg)	(mg)
College women	0 to 2	2009.2	74.9	4734.2	1.41	1.45	17.9	114.0	587.7	19.1
	3 to 5	2120.7	81.2	5180.7	1.43	1.52	18.0	168.9	669.5	20.2
	6 to 7 days	2190.9	88.6	4976.4	1.47	1.49	19.6	229.0	698.7	19.6
Their own mothers	0 to 2	2037.3	86.6	13369.8	1.57	1.67	22.9	159.8	635.2	23.4
	3 to 5	2078.6	87.5	9385.6	1.42	1.45	24.3	178.1	575.2	24.0
	6 to 7 days	2051.4	76.2	6516.4	1.26	1.71	19.8	171.4	681.2	23.4
Significant Effect		a'	a*	a***	a'	a'	a***	a'	a'	a***
Factor		c'	c'	c'	c'	c'	c'	c**	c'	c'
		ac'	ac'	ac'	ac'	ac'	ac'	ac'	ac'	ac'

': No significant, *P<0.05, **P<0.01, ***P<0.001

a: Effect of between two groups &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by F-test

c: Effect of between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 instan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by F-test

ac: 2-way interaction

Table 5. Daily average nutrition intakes according to instant frequency per week

Group	Nutrient Frequency	Calo- rie	Pro- tein	Vit. A	Vit. B ₁	Vit. B ₂	Nia- cin	Vit. C	Ca	Fe
		(cal)	(g)	(I.U)	(mg)	(mg)	(mg)	(mg)	(mg)	(mg)
College women	0 to 2	2093.6	80.0	4991.8	1.44	1.50	18.6	146.2	636.3	20.0
	3 to 5	2027.3	75.4	5000.7	1.35	1.45	14.8	209.6	647.5	17.3
	6 to 7 days	2111.8	88.5	3646.7	1.38	1.52	25.8	131.2	753.8	21.2
Their own mothers	0 to 2	2049.9	86.9	12280.7	1.55	1.65	22.8	161.6	633.3	23.7
	3 to 5	1878.2	80.6	19191.0	1.28	1.80	29.1	235.0	732.1	22.6
	6 to 7 days	1949.0	67.9	22323.7	1.29	1.34	23.8	91.3	398.7	17.3
Significant Effect		a'	a'	a***	a'	a'	a***	a'	a'	a**
Factor		d'	d'	d'	d'	d'	d'	d'	d'	d'
		ad'	ad'	ad'	ad'	ad'	ad'	ad'	ad'	ad'

': No significant, **P<0.01, ***P<0.001

a: Effect of between two groups &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by F-test

d: Effect of between daily average nutrient intakes & fast food intake frequency per week by F-test

ad: 2-way interaction

Table 6. Survey of instant food and convenience food intake and dining out meals

Item	Fre- quency Group	11 over	7~10	3~6	1~2	0	Total	χ^2
		times	times	times	times	times		
1. Frequency of intake per week (in 21 times)	College women	5.6 (12)	27.1 (58)	50.0 (107)	15.9 (34)	1.4 (3)	100.0 (214)	50.8***
	Their Mothers	1.7 (3)	11.6 (20)	37.0 (64)	43.9 (76)	5.8 (10)	100.0 (173)	

Item	Pattern Group	Korean Food	Western Food	Japanese Food	Chinese Food	Flour Food	The Others	Total	χ^2
2. Meal pattern	College women	9.8 (21)	15.9 (34)	0.9 (2)	1.4 (3)	70.1 (150)	1.9 (4)	100.0 (214)	38.1***
	Their mothers	32.9 (57)	13.3 (23)	1.7 (3)	3.5 (6)	45.7 (79)	2.9 (5)	100.0 (173)	
3. Dining out pattern	College women	20.6 (44)	25.2 (54)	-- (0)	6.1 (13)	47.2 (101)	0.9 (2)	100.0 (214)	91.4***
	Their mothers	60.7 (105)	13.9 (24)	1.7 (3)	10.4 (18)	11.6 (20)	1.7 (3)	100.0 (173)	

Item	Time Group	Breakfast	Lunch	Dinner	Total	χ^2
4. Dining out time	College women	60.2 (129)	39.3 (84)	0.5 (1)	100.0 (214)	13.8***
	Their mothers	42.8 (74)	56.6 (98)	0.6 (1)	100.0 (173)	

P<0.01, *P<0.001

보아 여대생은 등교를 하기 위해 아침식사를 자주 거르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어머니의 경우 중년층에서 대부분 점심때 외식을 한다는 안¹⁰⁾의 보고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어머니보다는 여대생에서 가공·편의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그 섭취형태도 한식형태가 적으며, 패스트푸드점에 자주 가는 학생일수록 외국음식이 더 맛있다고 응답한 보고⁷⁾ 및 외식 횟수(응답자의 36.6%)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편의식품의

간편성, 시간절약면에서 점차 주부들을 충족시켜 그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⁷⁾이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대학생에 의해 전통식품의 소멸을 막고 한국적인 맛을 가진 우리 식성에 맞는 전통적인 식품의 외식산업 식품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외식산업식품의 선택동기의 순위

외식산업식품의 선택동기를 보면 Table 7에서와 같이 여대생, 어머니 모두 1위는 간편도(여대생 45.

Table 7. The motive order of selecting convenience food, instant food, fast food

[unit : Respondent %(n)]

	College women(n = 214)				Their mothers(n = 173)			
	1 st*	2 nd'	3 rd'	Total	1 st*	2 nd'	3 rd'	Total
Preference	25.2 (54)	14.5 (31)	13.1 (28)	17.6 (113)	26.0 (45)	12.1 (21)	11.6 (20)	16.6 (86)
Food habits	5.1 (11)	7.0 (15)	11.7 (25)	7.9 (51)	9.8 (17)	8.7 (15)	7.5 (13)	8.7 (45)
Impulsive purchase (companion & advertisement)	10.3 (22)	13.1 (28)	15.4 (33)	12.9 (83)	5.2 (9)	8.1 (14)	13.3 (23)	8.9 (46)
Attention	0.5 (1)	3.3 (7)	7.0 (15)	3.6 (23)	1.7 (3)	1.2 (2)	7.5 (13)	3.5 (18)
Nutrition	0.9 (2)	1.4 (3)	0.9 (2)	1.1 (7)	1.7 (3)	4.0 (7)	4.0 (7)	3.2 (17)
Convenience	45.3 (97)	22.9 (49)	16.4 (35)	28.3 (181)	34.7 (60)	24.9 (43)	13.9 (30)	24.5 (127)
Time saving	8.4 (18)	25.2 (54)	21.5 (46)	18.4 (118)	15.6 (27)	26.6 (46)	17.3 (30)	19.8 (103)
Sanitation	-	0.5 (1)	2.3 (5)	0.9 (6)	-	1.7 (3)	3.5 (6)	1.7 (9)
Reasonable price	4.2 (9)	11.2 (24)	10.7 (23)	8.7 (56)	3.5 (6)	12.1 (21)	17.9 (31)	11.2 (58)
Employed mother	-	0.9 (2)	0.9 (2)	0.6 (4)	1.7 (3)	0.6 (1)	3.5 (6)	1.9 (10)
The others	-	-	-	-	-	-	-	-

: No significant, *P<0.05

3%, 어머니 34.7%), 2위는 시간절약(여대생 25.2%, 어머니 26.6%)으로 나타났으며 1위는 순위상관이 유의적(P<0.05)이나 2위, 3위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3위에서는 여대생이 시간절약(21.5%)이라고 한 반면 어머니는 적당한 가격(17.9%)이라고 대답하였다.

전체 평균순위를 보면 여대생, 어머니 모두 1위가 간편도, 2순위가 시간절약, 3순위가 기호로 나타났고, 특히 광고에 의한 충동구매 동기가 여대생이 4위이고, 어머니는 5위로 나타나 광고가 상품선택시 참

고가 되며 학력이 높을수록 광고는 더 필요하다고 보고¹³⁾한 것으로 미루어 광고가 많은 세상에서 자란 여대생은 외식산업 식품의 선택시 광고의 영향을 어머니보다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올바른 식품의 선택을 위한 올바른 식생활 태도가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3) 외식산업식품에 대한 만족도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Table 8.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instant food and convenience food

	College women				Their mothels				χ^2
	Satis- faction	Average	Dissatis- faction	Total	Satis- faction	Average	Dissatis- faction	Total	
Food preference	30.7 (66)	62.9 (136)	6.4 (12)	100.0 (214)	14.1 (19)	73.9 (124)	12.0 (30)	100.0 (173)	32.4***
Food habits	15.9 (34)	73.8 (158)	10.3 (22)	100.0 (214)	8.7 (15)	69.3 (120)	22.0 (38)	100.0 (173)	12.6**
Nutrition	6.5 (14)	62.6 (134)	30.9 (66)	100.0 (214)	8.1 (14)	59.5 (103)	32.4 (56)	100.0 (173)	0.54 ⁺
Convenience	82.7 (177)	15.9 (34)	1.4 (3)	100.0 (214)	68.8 (119)	29.5 (51)	1.7 (3)	100.0 (173)	10.5**
Time saving	73.4 (157)	24.8 (53)	1.8 (4)	100.0 (214)	71.7 (124)	27.2 (47)	1.1 (2)	100.0 (173)	0.56 ⁻
Sanitation	9.3 (20)	60.7 (130)	30.0 (64)	100.0 (214)	8.7 (15)	50.3 (87)	41.0 (71)	100.0 (173)	5.3 ⁺
Price	13.1 (28)	64.0 (137)	22.9 (49)	100.0 (214)	13.3 (23)	61.3 (106)	25.4 (44)	100.0 (173)	0.37 ⁺
The others	0.5 (1)	2.8 (6)	0.9 (2)	4.2 (9)	0.6 (1)	2.9 (5)	1.2 (2)	4.7 (8)	0.07 ⁺
Total	33.1 (496)	52.2 (782)	14.7 (220)	100.0 (1498)	27.2 (329)	52.7 (638)	20.1 (244)	100.0 (1211)	

⁺ : No significant **P<0.01 ***P<0.001

Table 8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여대생의 경우 '만족하다'가 33.1%, '보통이다'가 52.2%, '불만족하다'가 14.7%이며 어머니의 경우 '만족하다'가 27.2%, '보통이다'가 14.7%, '불만족하다'가 20.1%로 나타나 여대생이 어머니보다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에 대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여대생의 만족한 경우 간편함이 1위(82.7%), 시간절약이 2위(73.4%), 기호가 3위(30.7%)인 반면 어머니의 만족한 경우는 시간절약이 1위(71.7%), 간편함이 2위(68.8%), 기호가 3위(14.1%)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¹⁴⁾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한 인식 정도 연구에서 편리하다는 항목이 높은 결과와 일치한다. '보통이다'고 응답한 경우, 여대생은 1, 2, 3순위가 각각 식습관(73.8%), 가격

(64%), 기호(62.9%)순이었고, 어머니는 기호(73.9%), 식습관(69.3%), 가격(61.3%)순이었다.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경우, 여대생은 1, 2, 3순위가 각각 영양(30.9%), 위생(30%), 가격(22.9%)순이었고 어머니는 위생(41%), 영양(32.4%), 가격(25.4%)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즉석식품에 대한 만족도는 Table 9와 같이 모든 항목에서 '만족하다' '보통이다' '불만족하다'가 여대생의 경우, 각각 30.8%, 49.8%, 19.4%이며 어머니는 각각 27.2%, 50.2%, 22.6%로 즉석식품에 대해 어머니보다 여대생이 더 만족하는 경향으로 각 항목 별로 만족한 경우 여대생은 1, 2, 3위가 간편함(67.8%), 시간절약(67.3%), 기호(31.8%)이며, 어머니는 1, 2, 3위가 시간절약(64.7%), 간편함(60.7%), 기호

Table 9.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fast food

	College women				Their mothers				χ^2
	Satisfaction	Average	Dissatisfaction	Total	Satisfaction	Average	Dissatisfaction	Total	
Food Preference	31.8 (68)	57.9 (124)	10.3 (22)	100.0 (214)	19.1 (33)	58.9 (102)	22.0 (38)	100.0 (173)	14.4***
Food habits	16.4 (35)	70.6 (151)	13.0 (28)	100.0 (214)	11.0 (19)	67.0 (116)	22.0 (38)	100.0 (173)	6.6*
Nutrition	10.3 (22)	52.8 (113)	33.9 (79)	100.0 (214)	10.4 (18)	54.9 (95)	34.7 (60)	100.0 (173)	0.2*
Covenience	67.8 (145)	28.0 (60)	4.2 (9)	100.0 (214)	60.7 (105)	35.8 (62)	3.5 (6)	100.0 (173)	4.2 ⁺
Time saving	67.3 (144)	28.0 (60)	4.7 (10)	100.0 (214)	64.7 (112)	30.6 (53)	4.7 (8)	100.0 (173)	0.3 ⁺
Sanitation	11.2 (24)	48.6 (104)	40.2 (86)	100.0 (214)	13.3 (23)	45.1 (78)	41.6 (72)	100.0 (173)	0.64 ⁺
Price	11.2 (24)	62.6 (134)	26.2 (56)	100.0 (214)	11.0 (19)	59.0 (102)	30.0 (52)	100.0 (173)	0.73 ⁺
The others	1.4 (3)	2.3 (5)	0.9 (2)	4.6 (10)	- (0)	2.3 (4)	0.6 (1)	2.9 (5)	2.6 ⁺
Total	30.8 (462)	49.8 (746)	19.4 (290)	100.0 (1498)	27.2 (329)	50.2 (608)	22.6 (274)	100.0 (1211)	

⁺: No significant, *P<0.01, ***P<0.001

(19.1%)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인 경우는 여대생과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없이 1, 2, 3위가 각각 식습관(여대생 70.6%, 어머니 67%), 가격(여대생 62.6%, 어머니 59%), 기호(여대생 57.9%, 어머니 58.9%) 순으로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⁴⁾에 의하면 패스트푸드 식당을 찾는 이용자들의 선택기준은 영양가보다 기호나 가격이 더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결과를 보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불만족한 경우도 여대생과 어머니 사이에 차이가 없어 1, 2, 3위가 각각 위생(여대생 40.2%, 어머니 41.6%), 영양(여대생 36.9%, 어머니 34.7%), 가격(여대생 26.2%, 어머니 30%) 순으로 나타나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의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이였다.

전⁸⁾의 연구에 의하면 패스트푸드점의 위생상태에 대해 이물질의 발견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18.3%가 대답한 보고와 본 조사에서 위생에 대한 불만족한 정도가 1위인 결과로 미루어 보아 패스트푸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외식산업 식품업체 종사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외식산업식품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통이라고 대답한 경우, 여대생은 1위가 식습관인데 이는 여대생이 외식산업 식품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였으므로 어릴때부터 식습관에 잘 적응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만족한 정도는 간편함과 시간절약때문에 불만족한 정도는 영양과 위생때문으로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 등 외식산업식품의 발달이 식생활의 간편화 때문이라는 것과 일치¹⁵⁾하며, 또한 불

Table 10. Daily frequency of snack

Item \ Groups	College women	Their mothers	χ^2
3 times over	16.4(35)	5.2(9)	16.0***
1 to 2 times	79.4(170)	84.4(146)	
0 times	4.2(9)	10.4(18)	
Total	100.0(214)	100.0(173)	

***P<0.001

만족한 이유중 위생(여대생 30%, 어머니 32.4%)이 대부분인 것은 외국인이 한국음식점 음식을 싫어하는 이유중 대부분이 비위생적이기 때문이라고 한 점¹⁶⁾을 고려하여 위생적이고 가능하면 영양면을 염두에 둔 전통적인 외식산업식품을 개발해야 하겠다.

4) 간식섭취 실태조사

1일 간식횟수에 대한 결과는 Table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1일 한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이 여대생 95.8%, 어머니 89.6%로 여대생이 간식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Table 11을 보면 간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우선 순위는 각 순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1순위로 여대생은 음료(24.3%), 어머니는 과일(26.6%)로 나타났고 전체항목 종합순위로는 1, 2, 3순위가 여대생은 음료(21.8%), 간이음식점 간식(20.4%), 우유 및 아이스크림(19%)이며, 어머니는 과일, 음료(각각 20.2%), 집에서 조리한 간식(18.7%)순으로 나타났다.

여대생의 경우, 간이음식점 간식으로 떡볶이, 국수류 등을 좋아하는 것은 모¹⁾ 등, 안¹⁷⁾의 외식시 자주 선택하는 음식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집에서 조리한 간식에 대해 항목별 종합순위가 어머니 18.7%인 반면 여대생 5.1%로 여대생이 어머니보다 간식의 경우에도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의 섭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식품구매시 선택 순위 및 고려사항 순위

식품구매시 선택순위는 Table 12와 같다. 여대생, 어머니 모두에서 집에서 조리할 생식품이 1순위(여대생 82.2%, 어머니 94.8%),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이 2순위(여대생 71.0%, 어머니 76.3%), 즉석식품이 3순위(여대생 80.4%, 어머니 76.3%)를 차지하였다.

식품선택시 고려사항 순위에 대해 Table 13과 같이 여대생, 어머니 모두 1순위는 각각 기호(여대생 51.9%, 어머니 47.4%), 2순위는 영양(여대생 23.8%, 어머니 27.7%), 3순위는 가격(여대생 30.8%, 어머니 38.2%)순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손의 연구⁷⁾에서 식품 선택시 고려하는 점이 맛, 영양에 있다는 보고 및 전⁸⁾의 패스트푸드 음식종류의 선택요인에서도 1위가 기호(68.2%)로 가장 높고 가격(28.7%), 영양가(10.6%)의 결과와 일치한다.

식품선택시 여대생, 어머니 모두 자신이나 가족의 기호에 맞게 식품을 선택하므로, 식품선택시 기호가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으며 외식산업식품의 증가 추세에 따라 우선 우리나라 국민의 기호에 맞으면서 균형된 영양을 고려한 적절한 가격의 가공 및 편의식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IV. 결과 및 요약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대생 214명과 그들 어머니 173명을 대상으로 식생활태도 조사, 영양지식 점수 및 식습관 점수에 따른 식생활태도와 관계, 식생활태도에 대한 1일 영양소섭취량과의 관계, 외식산업식품 섭취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주일중 5일 이상 규칙적인 식사일수는 여대생

Table 11. The selection order of intaking snacks

[Unit : Respondent %(n)]

	College Women (n = 214)				Their Mothers (n = 173)			
	1 st***	2 nd***	3 rd***	Total	1 st***	2 nd***	3 rd***	Total
Home made snack	4.2 (9)	2.3 (5)	8.9 (19)	5.1 (33)	24.9 (43)	16.8 (29)	14.5 (25)	18.7 (97)
Milk, Milkshake Icecream	21.5 (46)	14.5 (31)	21.0 (45)	19.0 (122)	20.8 (36)	16.2 (28)	8.7 (15)	15.2 (79)
Fruits	19.2 (41)	16.4 (35)	11.7 (25)	15.8 (101)	26.6 (46)	20.2 (35)	13.9 (24)	20.2 (105)
Cider, Cake Juice Soyamilk Ceffee etc Beverages	24.3 (52)	27.1 (58)	14.0 (30)	21.8 (140)	11.6 (20)	23.7 (41)	25.4 (44)	20.2 (105)
Ramyeon	10.7 (23)	12.6 (27)	14.0 (30)	12.5 (80)	7.5 (13)	7.5 (13)	9.8 (17)	8.4 (43)
Fried chicken Fried potatoes Donuts Hotdogs Rolledrice in laver	2.3 (5)	7.0 (15)	7.0 (15)	5.4 (35)	1.2 (2)	2.3 (4)	3.5 (6)	2.3 (12)
Snacks in the Snack bar Cookie bread, Dockbokki Noodle etc	17.8 (38)	20.1 (43)	23.4 (50)	20.4 (131)	7.5 (13)	12.1 (21)	19.1 (33)	12.9 (67)
The others	0	0	0	0	0	1.2 (2)	5.2 (9)	2.1 (11)

Each order : ***P<0.001

(38.3%)보다 어머니(74%)가 더 많았으며, 1주일중 3일 이상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는 여대생(58.5%)이 어머니(16.2%)보다 더 많았으며 1주일중 3일 이상의 패스트푸드 식사빈도도 여대생(18.7%)이 어머니(4.6%)보다 더 많았다.

(2) 여대생, 어머니 모두 영양지식 점수와 규칙적인 식사일수와는 관련이 없으나, 식습관 점수가 높

을수록 규칙적인 식사를 하였다. 또한 여대생, 어머니 모두 영양지식점수가 높을수록, 식습관 점수가 높을수록, 인스턴트식품을 자주 먹지 않았다. 패스트푸드 식사빈도와 영양지식 점수와는 여대생의 경우 무관하였으나 어머니는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패스트푸드 식사빈도가 낮았고, 식습관점수가 높을수록 여대생은 패스트푸드 식사빈도가 높았고 어

Table 12. The selection of the grocessry food shopping

[Unit : Respondent %(n)]

	College women (n = 214)				Their mothers (n = 173)			
	1 st***	2 nd**	3 rd*	Total	1 st***	2 nd**	3 rd*	Total
Raw food	82.2 (176)	11.7 (25)	6.1 (13)	100.0 (214)	94.8 (164)	2.9 (5)	2.3 (4)	100.0 (173)
Instant food & convenience food	15.9 (34)	71.0 (152)	13.6 (29)	100.5 (215)	2.3 (4)	76.3 (132)	21.4 (37)	100.0 (173)
Fast Food	1.9 (4)	17.3 (37)	80.4 (172)	99.6 (213)	2.9 (5)	20.8 (36)	76.3 (132)	100.0 (173)

*P<0.05, **P<0.01, ***P<0.001

머니는 낮았다.

(3) 1주일중 규칙적인 식사일수에 대한 1일 영양소 섭취량은 여대생의 경우 무관하였고 어머니는 비교적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대부분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으나 유의성이 없어 식사의 규칙성 여부는 영양소 섭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에 대한 1일 영양소 섭취량은 어머니의 경우 무관하고, 여대생은 인스턴트식품 섭취빈도가 높을수록 1일 영양소 섭취량이 높았으며 패스트푸드 식사빈도가 높을수록 어머니는 낮았다.

(4) 외식산업식품 섭취실태를 보면 1주일간 가공·편의식품의 섭취횟수는 어머니보다 여대생이 더 많았으며 그 섭취형태가 분식(여대생 70.1%, 어머니 45.7%)이 가장 높았고 외식형태도 여대생은 분식형태를, 어머니는 한식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외식시기로는 여대생의 60.2%가 아침에, 어머니의 56.6%가 점심에 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의 여대생들의 규칙적인 식사일수가 낮은 결과와 일치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외식산업식품의 선택동기는 여대생, 어머니 모두 1순위가 간편함, 2순위는 시간절약, 3순위 기호로 나타나, 가공·편의식품이나 즉석식품을 영양이 풍부한 한끼의 완전한 식사로 생각하기 보다는 간편하고 시간절약이 되는 이유로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식산업식품의 만족도는 여대생이 31.9%, 어머니

27.2%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간편함과 시간절약을 들었고 불만족한 정도는 여대생이 17.1%, 어머니가 21.4%로 그 이유는 영양과 위생때문이었다.

간식섭취 실태는 하루 1번 이상 간식을 섭취하는 여대생이 95.8%로 어머니보다 높았고 간식으로 섭취하는 식품의 1, 2, 3순위가 여대생은 간이음식점 간식(떡볶이, 국수류), 음료, 우유 및 아이스크림순이고, 어머니는 과일류, 음료, 집에서 조리한 간식순으로 나타나 여대생은 간식의 경우도 외식산업식품 섭취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식품구매시 선택하는 식품이 여대생, 어머니 모두 1, 2, 3순위로 생식품, 가공식품 및 편의식품, 즉석식품순이었으며, 식품선택시 고려사항 순위는 여대생, 어머니 모두 기호, 영양, 가격순으로 1, 2, 3순위를 나타냈다.

따라서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식생활형태가 국제화 및 서구화되어 가면서 편리한 식생활을 추구하게 되고 외식산업식품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외식산업 발달과 함께 성장한 여대생은 당연히 어머니보다 외식산업식품의 섭취가 많았으며 그 섭취내용은 한식형태가 적어, 편리하면서도 전통식품의 소멸을 막고 우리의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한국적인 맛을 가진, 즉 우리의 기호에 맞는 전통적인 외식산업식품의 개발이 필요하겠다. 또

Table 13. The order of considerations in the food selection

	College women				Their mothers			
	1 st'	2 nd'	3 rd'	Total	1 st'	2 nd'	3 rd'	Total
Nutrition	20.1 (43)	23.8 (51)	21.0 (45)	21.7 (139)	23.7 (41)	27.7 (48)	13.9 (24)	21.8 (113)
Food preference	51.9 (111)	18.2 (39)	5.1 (11)	25.1 (161)	47.4 (82)	17.9 (31)	9.8 (17)	25.0 (130)
Food habits	17.3 (37)	14.5 (31)	15.0 (32)	15.6 (100)	14.5 (25)	16.8 (29)	11.0 (19)	14.5 (73)
Sanitation	2.3 (5)	7.5 (16)	7.0 (15)	5.6 (36)	2.3 (4)	9.2 (16)	9.8 (17)	7.1 (37)
Convenience	0.9 (2)	6.5 (14)	7.5 (16)	4.9 (32)	1.2 (2)	4.0 (7)	4.6 (8)	3.3 (17)
Time saving	- (-)	0.9 (2)	2.3 (5)	1.1 (7)	- (-)	0.6 (1)	3.5 (6)	1.4 (7)
Price	5.1 (11)	22.4 (48)	30.8 (66)	19.5 (125)	9.8 (17)	19.7 (34)	38.2 (66)	22.5 (117)
Attention	0.9 (2)	4.7 (10)	4.2 (9)	3.3 (21)	1.2 (2)	2.3 (4)	2.9 (5)	2.1 (11)
Impulsive purchase (Advertisement etc.)	0.9 (2)	1.4 (3)	4.7 (10)	2.3 (15)	- (-)	0.6 (1)	0.6 (8)	1.7 (9)
By new informatiom	0.5 (1)	- (-)	2.3 (5)	0.9 (6)	- (-)	1.2 (2)	1.7 (3)	1.0 (5)
The others	- (-)	- (-)	- (-)	- (-)	- (-)	- (-)	- (-)	- (-)

- : No significant

한 다양한 소비자층의 기호 및 욕구에 부응하여 제 공된 외식산업식품의 맛, 영양가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기술의 발달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V. 참고문헌

1. 모수미, 김창임, 이심열, 윤은영, 이경신, 최경숙 : 한국식품화학회지, 1(3), 295(1986)
2. 한국영양학회편 : 한국영양자료집, 신광출판사, 서울. p.90(1989)
3. 한국식품공업협회 식품연구소 : 외식산업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988)
4. A report by the American council on science and health. : *J. Am. Diet. Assoc.*, 81, 579(1982)
5. Stasch, A.R., Johnson, M.M. and Spangler, G. J. : *J. Am. Diet. Assoc.*, 57, 523(1970)
6. 김혜경 : 대한가정학회지, 25(2), 55(1987)
7. 손경희, 문수재, 이문영, 최은정, 황혜선 : 대한가

- 정학회지, 26(4), 53(1988)
8. 전미정, 김복희, 이경신, 모수미 : 대한가정학회지, 28(2), 15(1990)
 9. 이동배 : 월간식품산업, p.30~33(1983)
 10. 안숙자 : 한국조리과학회지, 1(1), 82(1985)
 11. 김초영, 남순란, 곽동경 : 한국식문화학회지, 5(3), 361(1990)
 12. 한명규, 장현기, 홍현표, 이성동 : 한국영양식량학회지, 17(2), 95(1988)
 13. 조한용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82)
 14. 김미향, 한재숙, 이효수 : 대한가정학회지, 26(3), 69(1988)
 15. 모수미 : 한국영양학회지, 19(2), 120(1986)
 16. 문수재 : 대한가정학회지, 24(2), 63(1986)
 17. 안숙자 : 한국식문화학회지, 4(4), 383(1989)
 18. 강남이, 송요숙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4(1), 34 ~ 45(1991)

(1991년 2월 27일 수리)